



## 화물연대 투쟁 정당하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면허 정지·취소와 사법 처리(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를 하는 것이다.

당장 파업 효과가 큰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건설 현장이 마비됐다)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됐다. 정부는 유조차(오일탱크로리), 철강 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다.

열토당토않게도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으로 규정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속에서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선 노동자 저항을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윤석열 제작 비극에 견주다니 그 뻔뻔함과 파렴치에 치가 떨린다. 윤석열이야말로 평범한 청년들의 안전을 내팽개쳐 비극을 만든 경찰력 오·남용자 아니던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공권력과 경찰력 배치 우선순위가 낳은 비극이다. 윤석열의 경찰력 배치 기본 방침에 따라 그날 경찰은 공안(집회 통제), '마약과의 전쟁', 대통령 경비에 집중했다. 그러는 사이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서울 중심지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이윤 보호를 우선하느라 노동자들의 생존 외침을 깔아뭉개고 있다. 윤석열의 직접 지시에 따라 범정부적 파업 파괴 대책본부(재난안전본부)가 꾸러지고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됐다.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에서 공히 확인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평

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 시험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물류와 국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며 노동자 탄압을 정당화한다.

윤석열이 걱정하는 "국민 경제"는 기업의 경제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삶과 저항을 짓밟아야 기업의 착취 활동이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고유가·고금리 때문에 매달 수백만 원씩 소득이 줄어 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맞선 투쟁은 광범한 대중의 생계비 고통을 대표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강경 탄압은 이 파업이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일으켜 정부의 위기를 재촉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옛새 만에 전국의 건설 현장 절반 이상이 멈춰고, 주요 항만과 컨테이너 기지 반출입량이 10퍼센트대로 푹 떨어졌다. 철강, 정유 공급에도 차질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은 취임 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일부 마비되고 정부 지지율이 떨어졌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막고자 안달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철도 파업과 결합되는 상황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탄압은 정부에 대한 노동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윤석열 퇴진 정서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11월 26일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지금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 정세 속에서 세력균형의 추가 어디로 기울지 가능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만큼,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역별 집회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단 하루일지라도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 “민생 볼모”? NO! 생계비 위기에 대한 대중의 불만 대표한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화물연대가 “국가 물류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 없는 폐쇄나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물류 공급 차질은 오히려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이 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해 왔는지를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흐르도록 연결하는 중요한 일을 해 왔다. 그런 만큼, 그 물류를 멈춰 세울 힘도 있다.

윤석열이 말하는 “국민 경제”, “민생”

은 기업의 이윤일 뿐이다. 윤석열은 노동자 등 서민층의 생활고에 관심이 없고, 되레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반대로, 화물연대 파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불만을 터뜨리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표한다.

이 투쟁이 성과를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계비 위기의 대안을 화물 노동자들은 보여 주고 있다.



# 대체수송 저지 투쟁은 효과 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화물 노동자들을 “불법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윤석열은 특히 화물연대의 봉쇄 투쟁을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 “동료 괴롭히기”라고 거품을 물었다.

그러나 주요 물류기지과 공장 등 거점을 봉쇄하는 대체수송 저지는 완전히 옳다.

이는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투쟁 방식이다. 국제 노동운동에서 ‘피켓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역사가 깊은 전술이다.

화물연대는 2003년에 부산항과 의왕기지 등을 봉쇄해 화물차 20만 대의 운행을 막아 정부의 양보를 얻어 낸 바 있다. 지난 6월에도 자동차, 석유화학단지, 컨테이너기지 등이 부분 마비됐다.

정부와 기업들이 대체수송 저지 투쟁에 진저리를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전술은 동료 괴롭히기이기보다는 단결을 위한 전술이다.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요구는 화물 노동자 모두의 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오랜 바람이다.



# 윤석열 퇴진 운동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최대 10만 명까지 규모를 키우며 커지고 있다. 이 운동 안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커다란 지지를 얻었다.

집회 주최 측인 ‘촛불행동’은 윤석열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항의하며 “화물연대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번 주말 집회에도 “윤석열은 업무 중단하고 퇴진하라”는 구호를 메인으로 걸었다.

업무개시명령 이전에도 퇴진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을 응원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유가(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에 맞서 저항에 나섰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다.

11월 26일 열린 퇴진 집회에서 <노동자 연대> 독자들은 화물연대 투쟁 지지 호소하는 호외를 나눠 주고, 화물연대 파업 지지 인증샷 캠페인을 벌였다. 호응이 뜨거웠다. 어떤 캠페인 부스

에선 인증샷을 찍으려고 줄을 섰다. 가족들이 함께 지지 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집회 사회를 맡은 안진걸 촛불승리 전환행동 공동대표가 “윤석열 폭압에 맞서 싸우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했을 때에도 대열에서 큰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약속을 어긴 거 아닌가요. 물류를 멈춰서 꼭 이겼으면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응원합니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 그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윤석열이 업무개시 명령을 하겠다고 계속 말하던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할 짓인가요? 미친 정부예요.”

“지난번 파업할 때 윤석열이 짹짹매는 것 같아서 속시원했고 뉴스 보면서 응원했어요.”

현 상황에 필요한 것

##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시너지

—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우다

12월 7일(수) 오후 8시 | 발제 김인식 <노동자연대> 발행인

참가신청 [bit.ly/meeting-new-1207](https://bit.ly/meeting-new-1207)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mailto: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웹사이트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대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wspaper.org](https://wspaper.org)

-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 윤석열은 왜 물러나야 하는가
- 윤석열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 ...

[youtube.com/c/노동자연대TV](https://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solidarity.org/join](https://workerssolidarity.org/join)